

200자 안내

아침꽃을 저녁에 줘다

노신 지음 / 이옥연 옮김

넓은 유교사상의 속박과 지배자들의 압박을 뿌리치는 사상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을 얻고 있는 작가의 산문을 모은 책. 작가가 1920년대부터 말년까지 발표한 20여편의 산문집과 시사평론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을 가려 뽑았다. 일화성 글들과 평이한 산문, 중국과 중국민중의 보편적 문제, 당대의 문제에 밀착한 글, 문학과 관련된 내용, 자전적 삶의 기록 등 글의 내용에 따라 5장으로 나누어 수록했다.

窓/A5신/244면/3600원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기슴만 남고

조철현 지음

‘고향으로 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의지로 자신의 과거를 공개한 빨치산 출신 허옥선씨의 삶을 소설화한 책이다. 김일성 대학 출신으로 ‘민간사절단 정치공작대원’으로 한국전쟁에 참가, 9·28퇴각과 함께 소백산 맥에서 빨치산 생활을 경험했으며 현재는 한 가정의 주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허옥선씨의 삶의 역정과 고뇌 등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성정 / A5신/310면/3900원

남파간첩

정혁중 지음

남파간첩 김바우씨의 구술과 증언을 토대로 한 실명소설. 전쟁후 밀봉교육을 받고 남파되어 간첩활동을 하던 중 전향을 결심, 농촌에 묻혀 살다가 검거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김바우씨의 삶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 이 소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든 한 인간의 비극적 삶을 통해 우리 현대사가 낳은 인간성의 매몰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해준다.

청림출판/A5신/300면/3500원

단군성조의 사상과 그의 人間學

김진혁 지음

‘정치·사회·개인윤리는 모두 종교와 철학이 창조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저자가 현재의 철학부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단군성조의 사상과 철학 및 그의 인간관을 제시하고 소개한 책. 단군성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철학을 「천부경」 「삼일신고」 등의 문헌을 통해 그 진의를 밝힘으로써 우리 민족사상의 뿌리와 맥을 되짚어보고자 했다.

인간사랑/A5신/304면/5000원

핫이슈·세계경제

일본경제신문사 엮음 / 전경훈 옮김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실체를 경제의 핫이슈들을 통해 분석한 책. 정치, 외교, 이데올로기, 전쟁, 민족문제 등 국제무대에 외견상 나타나는 문제들의 핵심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기본 입장. 제3차 오일쇼크설, EC통합, 소련·동구의 변혁과 방향, 변모하는 세계무역 등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계경제의 주요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국제정치와 경제와의 상관관계를 규

명하고 있다.

현대경영/A5신/268면/4000원

新자격증시대

돈포트폴리오 취재부 지음

100% 취업과 고소득을 보장받는 유망직종과 자격증 40가지를 수록한 책. 돈포트폴리오 취재팀이 빠른 기동력과 정직한 자세로 취재한 것을 묶은 이 책은 계속적인 수요증가 추세에 있으면서도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최신 유망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법, 시험기간 및 시험내용, 보수, 전망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으며 선배들의 체험기와 조언을 덧붙였다.

미래투자연구소/A5신/352면/5000원

생존의 사각지대

김석하 지음

20여년간 기지촌에서 DJ 생활을 했으며, 인신매매단의 근절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폭로, 화제를 모았던 김홍규씨의 고백을 소설화한 책. 마약, 강간, 살인, 인신매매 등이 활개치는 기지촌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임으로써 생존만을 위하여 하루하루 죽어가는 기지촌 여성들의 비참한 삶과 인신매매단의 조직과 포주들의 만행을 대담하게 폭로, 고발하고 있다.

글사랑/A5신/256면/3800원

과학자는 왜 선취권을 노리는가

고야마 게이타 지음 / 손영수 외 옮김

과학의 진보와 발전의 역사를 ‘발견의 선취권을 놓고 벌이는 다툼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살펴본 책. 암호문으로 새로운 발견 사실을 숨긴 갈릴레오, 라이벌의 이름을 저서에서 제외시킨 뉴턴 등 이 책은 근대과학 4백년의 역사 속에 숨어 있는 뜻밖의 인간드라마를 밝혀나가면서 경쟁원리가 지배하는 과학세계의 비정함과 또 한편의 매력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

다.

전과과학사/B6신/164면/2500원

無哲學時代의 哲學

김보겸 지음

제주대 인문대학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저자가 古稀를 맞으며 그동안 써 모았던 수필과 시, 에세이들을 묶어 펴낸 책. 격동의 세월을 거쳐온 한 지성인의 기억 속에 내장된 우리의 역사의 면모들과 해외여행경험, 노년의 일상에서 느끼는 감성 등을 다룬 수필 50여편과 함께 서정성이 풍부한 시 14편, 니체의 철학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성찰의 글이 함께 수록됐다.

世界文化社/A5신/290면/4500원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탈로 칼비노 지음 / 박상진 옮김

독창적 작품세계로 이탈리아 문단에서 주목을 끌었던 작가의 후기작품 중 대표작. 마르코 폴로가 제국의 황제인 쿠빌라이 칸에게 자신이 여행한 환상의 도시들을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55개의 도시들을 9개의 장으로 나누어 묘사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의 등장없이 고도의 상징성과 알레고리를 동원하여 미지의 세계에 대한 환상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청담사/A5신/208면/3000원

부처님의 아흔아홉가지 말씀

이형기 지음

‘만인을 위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종교’로 불교의 특성을 요약하는 저자가 불교경전을 토대로 하여 부처의 가르침 99가지를 현대어로 의역하여 풀어쓴 책. ‘본질을 보다’ ‘인간이라는 것’ ‘자기를 갈고 닦다’ ‘삶이라는 것’ 등 4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부처의 가르침을 실는 한편 승만경, 유마경, 관무량수경 등 대승경전의 3경을 요약, 해설한 것을 부록으로 덧붙였다.

각종 지류(紙類) 도매 소매

高麗紙業社

●서적지 ●모조지 ●아트지 ●엠보싱지 ●레자크지

고려지업사는 단행본 출간에 필요한 모든 종이를 다량 확보하여 소량의 종이도 최선을 다해 보급해 드리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수기가 되면 제지회사로부터 감수해야 했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대중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서적출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0-83 전화 : 292/4546, 294/9639 Fax : 294/6443

서울 중구 수표동 47-6 전수빌딩 807호 전화 271-2581, 2 팩시밀리 269-8890

아메리카 인디언의 가르침

포리스트 카터 지음 / 김훈 옮김

거대한 백인문명의 한 변두리에 사는 인디언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작은 나무라는 소년과 그 이웃들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루어내는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담은 소설. 작가 자신의 유년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 소설은 언어, 법, 제도 등 인위적인 규율보다는 영혼과 사랑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체로키인디언 부족의 삶을 서정적인 문체로 묘사하고 있다. 고려원미디어/A5신/298면/3800원

백서 도덕경-老子를 읽는다

박희준 평석

서라벌 예대에서 소설을 전공, 현재 번역에 종사하면서 건강명상법 개발에 힘쓰고 있는 저자가 10여년에 걸친 노력 끝에 펴낸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평석. 도덕경의 원형탐구를 위해 1973년에 발견된 帛書도덕경 甲本과 乙本, 그리고 현행본들을 비교하는 한편 최신의 다양한 학문적 분석들을 이용하여 노자의 핵심을 분석하고 이를 해설하고 있다. 까치/A5신/296면/5000원

바빌론 프로젝트

아델 다르위쉬 외 지음 / 이광석 옮김

각각 중동문제와 군수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두 언론인이 날카롭고 다각적인 정세분석을 통해 걸프전쟁의 진상을 생생하게 밝힌 책. 서방세계와 후세인체제와의 연관관계 및 걸프전쟁과의 관계, 걸프전쟁의 숨겨진 무기상인 및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역할 등 현재까지도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걸프전쟁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함과 동시에 중동지역을 둘러싼 앞으로의 국제정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영웅/A5신/368면/5800원

계간지

한길문학(1991년 봄)

[대담] 한국문학 연구의 반성과 과제(이선영 / 김윤식)

[특별기획] 민족문학의 재점검

▲계급성·예술성·도식성(손경목) ▲예술성·다원주의·문학적 진정성(권성우)

[사회주의와 문학] 슈테판 헤름린의 초상(송두울)

[우리 소설은 어떤 '말'로 써왔는가] 소설에 나타난 불순한 남의 말(이오덕)

[광대여, 광대여] 임진택론(이영미)

[독점자본주의와 '문화공간'] 롯데월드론(강내희)

[유배당한 한 시인의 현실고발] 이학규의 「기경기사사」(안대희)

[서평] 신승엽 / 김열규 / 임규찬 / 박혜경 / 임우기 / 이우용

[소련의 사회주의리얼리즘 논쟁]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의 현황과 전망(이향재) ▲문학과 새로운 사고(이고리 제드코프) ▲생활·예술·비평(D. 마르코프)

한길사/A5신/320면/4400원

외국문학(1991년 봄)

[특집] SF문학

▲SF: 새로운 리얼리즘과 상상력의 문학(김성근) ▲SF문학의 비평에 대하여(레슬리 피들러) ▲SF 연구와 그 문제점(라이머 예렘리히 / 박상배) ▲새로운 달력(아서 케슬러 / 김정련) ▲80년대와 90년대의 SF에 관한 단상(줄리안 하드랜드)

[SF 단편소설선] ▲관료주의(H.G. 프란치스 / 정은이) ▲숨바꼭질(아서 클라크 / 오현숙)

[논문] ▲장자의 사회적 위기의식과 자유의식의 문제(송영배) ▲「소피의 선택」에 나타난 고백의 양태(염경숙) ▲해방직후 노동소설과 인민성의 문제(신재성)

[시] 마종기 / 최영철 / 레이먼드 커버

[소설] ▲모자(토마스 베른하르트 / 김현성) ▲분노한 시대의 사랑(下)(로렌스 퍼링헤리 / 손홍기)

[오늘의 세계문학⑫]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와 비판의 문제(스티븐 코너 / 정정호)

[서평] 김준오 지음 「한국 현대장르비평론」(오세영)

열음사/A5신/270면/4500원

현대시세계(1991년 봄)

[기획평론] 최근 시에 나타난 주요 이미지 분석(반경환 / 전정구 / 김정란)

[시인연구] 최승자

▲시인과의 대담(이상희) ▲시인론(이광호) ▲최승자 신작시 ▲연보 및 연구자료

[제1회 김중삼 문학상 특집]

[신작시] 이가림 / 천양희 / 김중철 / 이준관 / 이홍섭

[특별개제평론] ▲박남철론(신현철) ▲황지우·김혜순론(이남호)

[21인의 재수록시] 김규태 / 최하림 / 정현중 / 김준태 / 김남주 외

[산문] 몸짓기의 덧없음, 혹은 죽음에 관한 한 명상(장석주)

[해외시 읽기·2] 사라 키르쉬

[시집서평] 김현선 / 고희진 / 성석제

청하/A5신/288면/4000원

작가세계(1991년 봄)

[박완서 특집] ▲문학적 연대기(김경연) ▲작가를 찾아서(조선희) ▲작품론(정호웅 / 박혜란 / 이동하 / 조혜정) ▲작가 연구자료(김경연) ▲신작단편(엄마의 말뚝·3)

[시] 성찬경 / 최승호 / 김신용 / 김삼미 / 이인화

[신인·시] 박상순 / 최관용

[비평] 우리 문학의 협계열차(김윤식)

[쟁점] 새로운 세대의 글쓰기

▲서정연습시대의 시적 징후(이광호) ▲젊음의 문학, 문학의 젊음(권성우)

[소설] ▲하얀저고리(조세희) ▲존재하려는 경향에 대하여(조성기) ▲겨울소묘(채영주) [프랑스 현대소설] 육조(장 필립 두생 / 이재룡)

[해외작가 특집·8] 줄리아 크리스티나 ▲대담(유지나)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성화용 번역) ▲사랑이야기들(성화용 번역)

세계사/A5신/492면/5000원

학회지

書誌學報(제3호)

[논문] ▲구한말 「교육월보」에 관한 一考察(최기영) ▲江船橋莊의 秋收記(티킵소틱) 분석(서병패) ▲撫書漫筆(李兼魯) ▲飽活字 存否에 대하여(안준근)


[자료] 「新增東國輿地勝覽」소재시문작가별색인Ⅲ(성균한문학교실) ▲朝鮮王朝實錄 文獻關係資料鈔錄續(3)(임창순)

[해제 및 彰印] 「杜堂尺素」(임창순)

한국서지학회/A5신/192면/비매품



날개돋힌 책



책들도 날고 싶어합니다. 아름답고 기능적인 표지로 날개를 삼아, 오래도록 멀리 날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길 바랍니다. 그런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BOOK DESIGN **작은북**
☎631-3971

出版企劃

(번역·집필)

- 한·중출판정보학회
- 한·중번역저술학회
- 현대중국학술정보센터

代表: 黃秉國
(前) 숙대교수·출판사기획실장·중국학 전공)

서울 양천구 목동 Apt. 10단지 31동 앞
전화: 645-7052

어른 새책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

출판·편집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디자인 회사,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이 지닌 감성구조를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출판디자인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
서울시 중로구 관수동4-4 용우빌딩302호

TEL: 268-2327~8, FAX: 268-2329

일본어 번역

“ 일 어-한국어
한국어-일 어 ”

박석규: 전화 449-1298
팩시 449-1297
감인영: 전화 763-1327